

 보건복지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배 포 일		2020. 4. 23. / (총 5매)		
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 1팀	팀 장	장 은 섭	전 화	044-202-3160
	담 당 자	나 경 채		044-202-3165

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 개발 시작!

-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 선정, 내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 예정 -
- 국민의 복지 체감도, 지자체 복지행정의 효율성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-

□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 ‘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으로 전면 개편된다.

<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>

국민 관점	지자체 공무원 관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수급가능 서비스 안내 • 복지로를 통한 맞춤형 검색 가능 •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선제적 안내 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 신청 확대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 • 신청·접수 채널 확대로 공간적 제약 극복  수요자 욕구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요자 욕구에 적합한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최적의 통합돌봄 서비스 수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 표준화된 복지사업 기획과 업무 지원 기능 강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오픈마켓형 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실시간 사업 정보 공유와 신속한 사업 운영 • 모바일 행복e음과 시비서로 업무효율성 증대  ㄹ자동 조사 및 월별 확인 조사 체계 변화로 업무 부담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기 항목 정비, 일정 기준 이하 대상자 결정 자동화로 ㄹ자동 조사·판정 업무 효율화 • 월별 확인조사 시 공적·금융자료 반영주기 단축, 환수·소급에 대한 자동화로 소명 감소, 업무 효율 증대  민간 서비스 정보 및 복지 자원 접근성 증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자, 종사자, 사업장, 시설-법인 정보 통합 관리 •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-민간 협업 기반 제공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4월 23일(목) “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”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.
-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‘행복e음’(사회복지통합관리망)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
 -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,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,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.
 - 시스템 분석·설계,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(가칭)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(‘21.9월 예정)하고, 이후 단계적*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* (‘22.1월) : 복지 신청창구 확대, 반자동조사 등 소득·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(사례관리)
 (‘22.7월) :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
-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 - ① (가칭)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.
 - ‘복지 멤버십’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·서비스의 수급자·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·가구를 등록하고,
 - 등록된 개인·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(假) 판정하여,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.

② 지역사회에서 민간·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.

- 지역사회의 주거·보건의료·돌봄·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·정비하여 '사회보장자원 통합틀(플랫폼)'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.

*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(매칭)하여 제공

-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·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*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**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·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

**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·절차 등을 선택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,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(모바일) 업무 환경 및 인공지능 (AI) 비서 도입

□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,

○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.

-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.

○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.

-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,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·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.

-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또한 “지역사회에서 민·관이 협력하여 노인, 장애인, 정신질환자, 아동 등의 욕구(니즈: needs)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”라고 밝혔다.
- 끝으로 “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< 참고 >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개요

참고

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개요

- (개요) 포용적 사회보장을 위한 정보기반으로서 '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'의 구축을 추진
 - (사업규모) 8년 간 3,496억 원(구축비 1,907억 원, 운영비 1,590억 원)
 - *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(B/C) 1.09로 적격 판정('18.5)
 - (추진일정) 시스템 분석·설계(~'20.12) → 시스템 개발(~'21.9) → 차세대 시스템 단계적 개통('21.9~22.)

<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비전·전략·핵심과제 >

비전	ICT를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
목표	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('21.9 일부 기능 조기 개통)
5대 전략 · 11대 핵심과제	【전략 1】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잘 찾아서 알려주는 포용적 서비스 강화 ② 국민이 있는 곳에서 상담·안내하고 신청·접수 ③ 숨겨진 위기가구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지원
	【전략 2】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 민·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 표준플랫폼 구축 ⑤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⑥ 지역 보건과 복지 간 정보 연계 고도화
	【전략 3】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⑦ 조사업무 경감 및 현장 업무 지원 ⑧ 지자체·타 부처의 사회보장사업 기획·운영 지원 ⑨ 제때 확인조사로 뒤늦은 환수·상계업무 경감
	【전략 4】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⑩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한 정책 결정 및 연구 지원
	【전략 5】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⑪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